

### 맞이하기

- \*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가장 힘들었던 일 한 가지와 가장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나누어봅시다.
- \* 지난 주 함께 기도한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누어 봅시다.

### 말씀요약

- \* 설교본문과 설교요약을 읽습니다. ([bit.ly/31moim](https://bit.ly/31moim))

### 은혜 나누기

- \* 말씀을 들으며 가장 와 닿았던 내용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 말씀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감사하게 된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 오늘 나눈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도전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와 동일시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받고 있습니까?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 함께 기도하기

- \* 이번 한 주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구체적인 기도제목 한 가지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 \* 공동체를 위한 기도제목들을 공유하며 기도합시다.

## 들어가며

이사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린 보좌와 성전에 가득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옷자락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그림은 이사야로 하여금 이 땅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려내실 새로운 그림을 향하여 그의 시선을 이끌어 갑니다.

### 1. 화로다 나여!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왕을 목격한 이사야는 탄식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님의 영광에 압도된 이사야는 자신의 죄와 부정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입술의 말들, 곧 그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부정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남들보다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는 대신에 유다 백성 전체의 죄악이 곧 자신의 죄악임을 인정합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 자신도 그 공동체의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통해 이사야와 온 유다 백성은 동일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는 죄인은 이사야지만 또한 온 유다 백성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사야는 유다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때, 자신과 백성의 죄와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 곁에서 찬미하던 스랍 중 하나가 날아옵니다. 그는 제단에서 집은 불붙은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였느니라’는 사죄 선언을 합니다. 이는 죄 사함의 은총이 인간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부정한 상태로 두시지 않고 불같은 정화의 시간을 통해 새롭게 하실 것임을 암시합니다.

### 2.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히게 하라

이사야의 입술의 부정함이 제하여 지고, 죄가 사함 받은 후에야 이사야는 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의 귀에 분명히 들려온 주님의 목소리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죄의 은총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소명 또한 사람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격 없는 죄인을 새롭게 하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에게 주어진 사명을 듣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대와는 상당히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역할은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감기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만큼 무서운 재앙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맡은 이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의 지혜를 어둡게 하셔서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무지한 상태에 던져두셨습니다(사 29:10-13). 온 유다 백성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듯 보였지만, 정작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무지와 무지에서 나온 모든 패역은 결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본 세 번째 그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완전한 멸망하여 그 땅 황폐하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무가 베여서 불살라질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라는 새로운 그림을 동시에 남겨 놓으셨습니다. 황폐한 땅에도 그루터기처럼 남을 거룩한 씨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참혹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새 소망을 주십니다.